

## 시련이 키운 '효녀 골퍼' 이정은

순천 출신 '핫식스' 이정은  
US오픈 우승 감동 스토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 골퍼대회에서 순천 출신 '핫식스' 이정은 (23)이 정상에 올랐다.

이정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1·6535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제74회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 기사 20면>

이정은의 성취 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눈가를 적시게 하는 성장과정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LPGA 투어 웰리파잉 스쿨에 도전, 1위를 차지했음에도 미국행을 주저했다. 주변에서 LPGA 투어 신인상 후보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효심 깊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없어서다.

아버지 이정호씨는 이정은이 4살 때 덤프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도 장애인 됐다. 그는 장애인용 승합차를 직접 운전해 딸을 훈련장에 배라다 주는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아버지의

레슨 코치로 가족들 돌보며 가난한 살림에 골프 시작 장애인 아버지 승합차 몰고 훈련장 오가며 뒷바라지 헌신 동명인 많아 숫자 '6' 붙여

눈물'도 있었다. 이씨는 승합차에서 12시간 넘게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딸을 기다린 적도 있다.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이 노출돼 딸에게 짐이 될까봐서다. 이정은이 US오픈에서 우승하고 첫 통화한 사람이 아버지인 이유다.

이정은이 강인하고 대담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것은 부전여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애인에 굴하지 않는 이씨는 2012년과 2013년 장애인 전국체전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 2017년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정형편 탓에 이정은의 골프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이정은의 부모는 외동딸을 골퍼 선수로 키우기 위해 아파트를 잡히고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 결국 이정은은 순천 봉화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간 골퍼를 배우다가 그만뒀다.

하지만, 이정은은 중 3때 다시 골퍼 채

를 잡았다. "레슨 코치가 되면 먹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늦게 시작한 골퍼였지만 이정은의 성장은 가파랐다. 순천 청암고등학교 2학년 때 배어크리크배 전국대회에서 우승했고, 골퍼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라도 토종' 이정은의 성장과 광주·전남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마추어 골퍼 등용문으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주최한 호심배를 2014년, 2015년 내리 제패한 이정은은 곧바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5년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차지했다. 같은 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준회원 테스트에 합격, 3부 투어 우승, 시드전 통과 등 코스를 착실히 밟은 이정은은 2016년 KLPGA 투어 신인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정은은 미국과 국내에서 '식스'로 통한다. 이정은의 이름 옆에 숫자 '6'이 붙기 때문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동명인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면서 이정은의 번호는 '6'이 됐다. 행운의 번호다.

LPGA 투어에서 이정은과 만나는 선수와 캐디는 이정은을 받들기 쉽게 '식스'로 부른다. 이정은은 숫자 '6'을 쓴 공



2015년 호심배에서 우승한 이정은.

으로 플레이한다. US여자오픈 우승도 6이 새겨진 공으로 이뤘다.

이정은은 "루키 선수로서 우승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큰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리라는 생각지 못했다. 큰 행운 같아서 놀라고 믿을 수 없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이정은을 상징하는 '6'(식스)과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이정은.

## 정부, '미국 5·18 문건' 기밀해제 요청한다

李 총리 "가능한 방안 모색"  
백악관에 공개 청원도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문건의 기밀해제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을 한국정부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도 시작했다. <관련 기사 3면>

3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5·18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해제 및 자료 요청 의향'을 묻는 천 의원의 질의서에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기(秘) 공개 또는 전할한 사례 등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18관련 미국의 군사 기밀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39년 전 한국 5·18에 관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을 한국정부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18과 관련된 국내 자료가 대부분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미국정부의 39년 전 기밀문서가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1979년과 1980년에 작성한 한국 5·18 관련 기밀문서들 원본 자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청와대 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청원 글이 게시된 후 한달 내에 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백악관이 답변을 하는 제도다.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에 들어가서 '5·18 문서공개 청원글'을 누른 후 영문으로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면 입력한 이메일로 청원확인 메일이 발송된다. 그 메일을 확인해 '승인 링크'를 클릭하면 청원이 완료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상조 "광주형 일자리 정부차원 적극 지원"

공정위장 광주 기아차 방문  
"협력사 도와야 불황 극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현대차 그룹이 추진 중인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업체 상생 및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박한우 대표이사 등 기아차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기아·대우가 다각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협력·유관업체 상생 및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관건

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고,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면서 "과거 조선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격려하는 것과 맞물려 추진됐다. 그동안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상생협력의 다른 한 축인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을 가져오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지 마세요.

해외여행 후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1일부터).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현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마시고, 귀국 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세요.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삼가주세요.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잘 알려주세요.

돼지가 고열·폐사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주세요.

☎ 신고 전화 1588-9060/1588-406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사람은 감염되지 않음)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여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현재 예방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